

#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

## 제 4 차 회 의 결 과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6. 02. 06.(금) 16:06~
- 장 소 : 의회운영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9명
  - 특위위원(8) : 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 강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이재 위원, 나인권 위원, 서난이 위원, 이병도 위원
  - 집행부(10) :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신현영 기업유치과장, 이순택 환경산업국장, 이현옥 생활환경과장,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 최재길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영란 전환산업과장,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조성연 바이오방위산업과장, 박선미 디지털산업과장
  - 출연기관(1) :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안 건
  - 전북 첨단전략산업 지원 추진 관련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I 회의 내용

- 전북 첨단전략산업 지원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답변

### II 질의 · 답변내용

#### < 권요안 부위원장 >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대응과 관련하여, '청와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전북도의 입장인지, 이는 기업 유치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 ▶ 입지에 대한 선택권은 기업에 있다는 의미이며,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또한,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전력·용수 확보, 산단 부지 물색 등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위해 정부에 지산지소(지역 생산, 지역 소비) 관련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지?
- ▶ 정부에도 지산지소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대응 자료에 이러한 노력을 더욱 충실히 담아내도록 하겠음.

## 〈 강태창 위원 〉

- 전북특별자치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인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은 무엇인지?
- ▶ 광활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용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전력 문제의 경우,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만금에서 지산지소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훨씬 유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논리로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음.

## 〈 서난이 위원 〉

- 미래첨단산업국 핵심사업 중 모빌리티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 과거 실증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피지컬AI와 접목된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 AI 기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은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실증·표준화·상용화 과정은 기존 사업과 접목하여 추진할 계획임.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새만금에 올 수 없는 이유로 전력과 용수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이슈 브리핑 등으로 언론에 노출하여 도민과 기업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 ▶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하며, 전북연구원 등을 활용해 전력·용수 확보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언론 대응을 강화 하도록 하겠음.

### 〈 김동구 위원장 〉

- 이차전지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정책 변화가 있는지, 서해안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 ▶ 폐수 무방류 정책은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해양생물 종을 추가하여 생태계 변화를 정밀 모니터링할 계획임. 또한, 해수부·환경부와 공동으로 연안수질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선례가 있는 포항의 과오와 성공 사례를 적용하며 주민·어업인과 소통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 서해안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겠음.
-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새만금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 ▶ 이차전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의 전기차 정책 변수로 인해 일부 투자가 지연되는 면은 있으나, 대다수 기업이 전기차 산업의 대세를 인정하고 있어 투자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부족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애로해소 창구를 강화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음.

### Ⅲ 회의 사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제4차 회의)